

# ‘속도전’ 박차 가하는 번역물시장

## 시사물과 소설류 주종 이뤘…과당경쟁 등 부작용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화제의 책, 드디어 국내 완역 출간”이라는 광고문구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신간, 현지 동시 출간”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같은 ‘화제의 책’이라도 전자가 ‘완성형’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예상형’이다.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해외 최신간의 발빠른 번역 출간으로 현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끼어 있는 책들은 순위가 오르기가 무섭게 국내 서점가에 속속 선보이고 있고, 시장성과 지명도가 높은 작가일수록 현지와 동시 출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다.

### 발빠른 번역으로 현지 동시출간 많아져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내 번역물시장은 극히 협소해 시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 해외 신간정보 자체에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번역 출간은 곧 졸속번역으로 치부되거나, 실제 짜집기번역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저작권협약 가입 이후, 국내 에이전시들의 본격 가동에 힘입어 해외 신간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출판계 동향까지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신간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이전의 ‘해적출판’에서 정식 저작권 계약을 통한 ‘합법적’ 출판으로 바뀌면서 국내 번역물시장은 바야흐로 제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바로 국내 출판사들의 ‘속도전’. 지금까지 번역물에만 치중했던 출판사들에 새로운 출판사들까지 대거 가세해 경쟁적으로 최신간의 ‘빨리 번역해내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내 번역물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새로운 연대의 개막에 때맞춰 개편된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경제서와 미래예측서 등의 시사물과 무겁지 않은 대중소설류가 주종을 이루는 이즈음의 번역물들은 출간 즉시 국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판매에 호조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계속 서점가의 점두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물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 중 현재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눈에 띄는 곳으로 고려원과 김영사, 동아출판사, 시사영어사, 한국경제신문사출판부, 열린책들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원은 현재 고려원미디어와 함께 번역물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번역자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갖춘 번역실을 따로 마련해 편의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상주직원을 두고 수시로 해외 신간 동향을 파악, 출판사 자체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고려원미디어의 경우 이른바 ‘명상서적’ 시리즈에 해당하는 ‘마음의 책들’과 최근 들어 새롭게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추리소설 시리즈 등 나름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번역물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이 비교적 시의성에 구애받지 않는 책들이라면, 가장 최근의 미국 베스트셀러 그룹에 속하는 ‘미국을 죽인 남자’(샘 지앙카나·척 지앙카나, 이혜경 옮김) ‘비에 젖은 꽃들’(로자문드 필처, 김현성 옮김) ‘사랑과 추억’(팻 콘로이, 최복선 옮김) 등을 비롯해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진상’(짐 개리슨, 이상근 옮김) ‘존 에드거 후버’(거트 젠트리, 정형근 옮김) ‘제2차

###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 해외 최신간의 발빠른 번역 출간으로.

### 현지 베스트셀러들이 속속

###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다.

### 에이전시들의 본격 가동에

### 힘입어 바야흐로 ‘속도전’에 돌입한

### 번역물시장은 여러 문제점에도

### 불구하고 출판시장 개방을 앞둔

### 국내 출판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에드 루게로, 김상온 옮김) ‘8월의 쿠데타’(고르바초프, 정형근 옮김) 등 화제의 신간에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사는 주로 문학류에 주력하고 있는 편. 상당한 국내 고정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시드니 셸던과 마이클 크라이튼 등 ‘굵직한’ 작가들의 최신작을 집중적으로 펴내고 있는데, 셸던의 ‘시간의 모래밭’, ‘깊은밤의 추억’, ‘최후 심판의 날의 음모’(이상 공경희 옮김)와 크라이튼의 ‘쥬라기 공원’, ‘떠오르는 태양’(이상 정영목 옮김)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현지 출간 후에 번역된 ‘쥬라기 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나 가제본 상태로 계약, 동시 출간된 경우에 속한다. 김영사도 국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독자적인 해외 신간정보 루트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 로자문

드 필처(「조개죽는 아이들」)를 작가목록에 추가했고 연전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로버트 풀검(「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최근작을 곧 출간할 예정.

### 경제서와 미래예측서도 강세

동아출판사, 시사영어사, 한국경제신문사출판부의 경우는 ‘경영전략서’나 ‘미래신서’로 불리는 시사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아출판사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新·기업참모」(오마에 겐이치, 하재기 옮김) 「성장하는 경영 성장하는 기업」(미야타 야하치로, 김승호 옮김) 「기업의 생명은 사람이다」(다나베 가즈노리, 강환석 옮김) 「영뚱한 발상 기막힌 성공어? 아하!」(요시하라 히데키, 하재기 옮김) 등이 기업경영의 체험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들인 반면, 「제2차 태평양전쟁」(G. 프리드먼·M. 르바드, 남주홍 옮김) 「아시아의 경제지도 이렇게 달라진다」(와타나베 도시오·아오기 다케시, 오정환 옮김) 「동북아시아 경제권」(도마 다케오, 오정환 옮김)은 2천년대 가까운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전망을 예견하고 있는 책들. 이밖에도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신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최근작 「자유의 모험」(한지희, 김희숙 옮김)도 방대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빨리 번역 출간돼 화제를 모은다.

시사영어사도 활발한 경제·경영서 출간으로 독자적 영역을 쌓아가고 있다. 「이미 시작된

## 염색의 미

백태호 지음 / 8,000원

산업사회의 시대배경에 맞추어 염색공예 작품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다양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작품구상에서 제작·완성에 이르는 실제과정과 염색공예의 미, 동향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함께 다루었다.

## 예술과 幻影(상·하)

에른스트 고프리치 지음 / 백기수 옮김  
상: 4,000원, 하: 4,900원

고프리치의 위스턴 국립미술관 멜론강좌 ‘가시적 세계와 미술의 언어’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석기시대 동굴벽화에서 현대회화에 이르기까지 회화적 재현양식의 발전단계에 대한 해석을 갈포퍼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풀어나갔다.

## 미술의 이해(상·하)

진 빈센트 지음 / 조선미 옮김  
상: 3,800원, 하: 4,400원

악령을 물리치기 위한 장식의 모티브를 공통된 특징으로 지니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술의 역사를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인문적 상황, 작가의 개성적 측면과 작품의 특유성 등으로 나눠 서술한 비전공 대학생을 위한 개설서.

## 산업도자 성형기법

로저 베슈테르, 매리 루이 갤러웨이·오카지마 지음 / 김옥조 옮김 / 6,000원

산업도자 이론과 제작의 세계적 권위인 로저 베슈타르의 대표적 저술로서, 석고를 이용한 원형과 원형틀 기법의 모든 것을 사진 및 그림 4백 30장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들도 석고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꾸몄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 11-1 전화: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312-4312



원고나 가제본상태에서 계약, 출판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은 을지서적 외서부 코너.

21세기, 새로운 현실」(P.F.드리커, 김용국 옮김) 「성공하는 사람 번역하는 기업 어디가 다른가?」(하베이 맥케이, 임진택 옮김) 「SONY 스토리」(모리토 아끼오, 고명식 옮김) 「아이 아코카 자서전, 直言」(리 아이아코카, 김용국 옮김) 「일본의 권력구조」(카렐 반 월페덴, 양찬규 옮김) 등 발행잡지인 「시사영어」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하는 경제사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한국경제신문사출판부도 특색있는 출판물로 주목되는데, 가볍지 않은 '준이론서' 수준의 경제서나 미래학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세계적 선풍을 일으켰던 「권력이동」(앨빈 토플러, 이규형 옮김)을 비롯해 「경영혁명」(톰

피터스, 노부호 옮김) 「유러퀘이크」(대니얼 버스타인, 손일현 옮김) 등이 최근 출간된 것들로, 논설위원을 비롯한 전문편집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문사만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심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도 러시아서적 전문출판사로 알려진 열린책들의 경우, 아나톨리 리바코프의 「아르바트의 아이들」(홍지웅·이갑수 옮김) 「그후의 세월」(이대우 옮김)과 같이 소련 현대작가들의 최신작을 계속 소개해오고 있는 한편 「푸코의 추」(움베르토 에코, 이윤기 옮김) 「소설」(제임스 미치너, 윤희기 옮김) 등 여타 지역의 화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의 와해로 현재 저작권관계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렇다할 신작도 나오지 않아, 당분간은 관망하며 고전작품 출간에 주력할 계획.

### 유명작가, 베스트셀러에 지나친 편중

이상에서와 같이 비교적 개성이 뚜렷하고 지명도 있는 출판사들 이외에도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번역물시장의 '속도전'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많다. 이 '속도전'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가제본상태에서의 계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 국내 에이전시 혹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타이핑된 원고상대나 가제본상태로 작품을 받아 번역, 출간하기 때문에 현지와 거의 동시에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정한 판매수수가 보장된 유명작가일수록 계약시기는 빨라져 계약 이후 빠르면 4~5개월, 늦어도 8~9개월 안에는 번역출간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최신간의 발빠른 국내 소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출판계 내부의 목소리. 우선 몇몇 유명작가나 베스트셀러 목록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상업성에만 집착해 대중성 강한 소설류가 경쟁적으로 번역되고 있고, 「양들의 침묵」류의 추리물도 부쩍 눈에 띄고 있다. 을지서적 외서부를 운영하고 있는 조승훈씨는 "해외신간이 예전에 비해 빨리 번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항때 들던 음악을 지금도 지겹게 듣고 있는 격"이라며 "작가이름만 보고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무분별하게 출판하거나, 좋은 신간을 애써 찾으려는 노력없이 베스트셀러목록이 신간정보의 모든 것으로 치부되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한다. 간혹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계약금 상승문제도 이와같은 편중현상에서 비롯된다. 번역물시장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서나 미래서의 경우도 지나치게 일본과 미국에 치우쳐 있어 국내 독자들의 斜視化가 우려되기도 한다.

번역 자체의 문제도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빨리 번역된다"는 사실과 "제대로 된 번역이다"라는 사실은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번역가들의 의견이다. 번역가 이희재씨에 따르면 "내용과 길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번역의 절대시간'은 어떤 종류의 책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속도전'에 의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책들이 그 양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도 비교적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장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국내 번역물시장의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은 귀기울일 만하다. 특히 출판시장 개방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 출판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해외신간의 번역출간은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나간다면 몇년안에 주목할 만한 출판시장으로 국제적 시선을 모으게 되리라는 전망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우리 출판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다름아니다.

— 정소연 기자

### 칸트 철학의 분석적 이해

C.D. 브로드 지음/하영석, 이남원 옮김 / 12,000원

칸트철학의 핵심적인 점들이 그의 주요저서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데 특히, 《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칸트철학을 비판적 견지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저자의 명석하고도 사려깊은 비판은 예리하고도 호소력이 있다.

###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J.L. 아크릴 지음/한석환 옮김 / 6,500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반에 대한 안내서로 기존의 연구서와는 달리 그의 철학적 논구들이 지닌 생각들과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는 생각 사이의 연계성을 밝혀 그가 다방면에 놀라운 형안을 지닌 철학자임을 밝혀준다.

###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신중섭 지음 / 7,500원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과학의 합리성에 대한 극단적인 두 입장을 형식적 합리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로 규정하여 비판하면서 역사적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제 2부는 제 1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 말과 행위

J.L. 오스틴 지음/김영진 옮김 / 5,500원

비트겐슈타인과 더불어 20세기 분석철학과 언어철학의 거장인 오스틴의 저서로 언어철학, 분석철학, 분석 윤리학 등의 중요 문제를 다루었으며 철학, 언어학, 법학, 언론학, 의사소통론, 영어 문법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